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09. 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09. 1

최진욱 (북한연구실장)
전현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정아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최수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영호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형중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전반적 특징	1
II. 2008년도 자체 평가	5
1. 정치	5
2. 경제	5
3. 사회·문화	6
4. 군사	6
5. 대남	6
6. 대외	7
III. 2009년도 부문별 시정방향과 전망	8
1. 정치	8
2. 경제	10
3. 사회·문화	12
4. 군사	14
5. 대남	14
6. 대외	16
IV. 정책적 함의	17
<부록> 2009년 신년 공동사설	19

북한은 2009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해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

I. 전반적 특징

- 금년 신년공동사설의 핵심 단어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임.
 -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 2008년 경제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지난해 성과를 짧게 언급하는 등 불안감과 초조감을 드러냄.
 - 2008년 신년공동사설은 공화국 창건 60주년인 2008년을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규정하는 등 의욕을 보인바 있으나 경제파탄에서 벗어나지 못함.
 - 김정일이 현지도한 함흥공업지구(흥남비료공장, 2·8비날론공장) 등에 대한 언급없이 느닷없이 연말에 방문한 천리마연합제 강기업소를 비롯한 소규모의 예성강청년1호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 영원발전소 등의 성과를 언급하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함.
- 금년 공동사설은 1998년 이후 북한이 부분적으로 시도했던 변화노선이 전면적으로 후퇴한 것을 확인하는 것임.
 - 분권화, 내각의 역할 강화, 지배인 책임제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했던 조치들이 중단

- ‘혁명적 대고조’는 대외개방보다는 50년대 천리마식의 노동력 동원을 통한 자력갱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생산요소의 외부수혈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의 내부 동원에 의존하는 폐쇄적 경제회생 노력

- ‘혁명적 대고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속도전’과 ‘사상전’이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내각이나 군보다도 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총공격전’, ‘전인민적 총공세’, ‘천리마 대고조’, ‘대혁신, 대비약’, ‘비약의 폭풍’, ‘21세기의 새로운 대고조의 역사’ 등의 구호가 나타남.

- 전사회적으로 당이 중심이 되어 유일사상체계확립운동이 강화되고 지방에서 당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에서 내각의 역할이 축소되고 효율성에 대한 고려 보다는 주민통제와 주민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70년대식 당사업 방식을 강조함.
 - 경제정책의 전반 내용도 ‘혁명적 대고조’식이 나올 때 마다 강조되는 집단주의와 자력갱생,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등이 두드러짐.
 - 과거 “경제사업 내각 집중” 표현 대신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강화”가 사용됨.

- 50년대 노력동원으로 퇴행함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청사진이나 비전이 제시되지 않음.
 - 앞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변화나 개혁개방의 의지가 없음.
 -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거나 강성대국의 문패를 단다는 등의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일관

- ‘군사규율 확립’과 ‘조선인민군의 품격’을 강조하는 등 지난 10년간 선군정치 하에서 만연된 군의 대민 피해를 질책하고 군민단결 강화를 강조하는 등 군내 사상학습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선군후로’ 대신 ‘인민을 돕자’라는 새로운 구호 제시
 - ‘선군조선’, ‘선군의 길’, ‘선군의 기치’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선군혁명노선’, ‘선군시대’ 등의 선군식 단어는 사용되지 않음.
 - 군대와 국방공업에 관한 부분이 2008년에는 경제정책 앞에 위치해 있었으나, 금년에는 경제정책 뒤로 밀림.

- 금년 공동사설은 어느해 보다 내부결속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심단결’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의 정치적 불안감을 표출함.
 -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자기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 약화를 우려함.

- 남북관계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남한주민의 반정부 투쟁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등 남북관계의 전망을 어둡게 함.

- 대외부문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추파를 보내고 핵문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미관계에 적극성을 드러냄.
- 미국에 대한 일체의 언급과 비난을 중단한 데 반해 대남관계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난함.

II. 2008년도 자체 평가

1. 정치

- 공동사설은 “천만군민이 령도자를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일심단결의 대풍모, 전민이 무장한 선군조선의 무적필승의 위용,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해나가는 혁명적기상이 9월의 대축전장에 차넘쳤다”라고 평가함.
 - ‘9.9절’ 퍼레이드에 김정일이 불참하였고 충성심 저하, 경제난, 사회 불안 등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은폐하려는 수사로 가득함.
- 2008년은 ‘당의 령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과 달성을 자평함.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수 많은 공장 및 기업소의 현대화 추진
 - 예성강 청년1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등의 완공
 - 대흥단과 미곡협동농장의 성공
 - 평양시 재단장 등

2. 경제

- 북한은 2008년에 인민경제의 기술적 토대와 생산 잠재력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함.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 수많은 공장과 기업소의 현대화 추진 및 수력발전소(예성강청년1호, 원산청년, 영원)와 같은 중요 대상의 완공

- 동시에 사회주의 농촌의 전망이 밝아지고, 평양시를 비롯해 전국이 정비되어 조국의 면모가 일신되었다고 자랑하였음.

3. 사회·문화

- 사회·문화부문에서는 예술, 교육, 체육 부문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함.
 - 예술 부문에서는 여성 3중창 ‘강선의 노을’, 기악과 성악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합창곡 ‘눈이 내린다’ 창작
 - 교육 부문에서는 과학교육사업 성과
 - 체육 부문에서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성과

4. 군사

- 전반적으로 볼 때, 선군정치 기조 하의 북한 인민군대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군사규율’과 ‘조선인민군의 품격과 면모’의 확립을 강조하는 등 군을 강하게 질타함.

5. 대남

- 통일운동이 남한의 정권교체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평가함.
- 남한 당국이 궁지에 빠져 들고 있으며 과감한 투쟁을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함.

6. 대외

- 대외부문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고 함으로써 핵문제 돌파구를 위한 대미관계에 적극성을 드러냄.

Ⅲ. 2009년도 부문별 시정방향과 전망

1. 정치

가. 시정방향

- 공동사설은 김정일이 지난 해 12월 24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하면서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며 “천리마 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정신, 그 투지”를 강조한 것을 재인용함.
 - 북한은 이미 1998년 3월 김정일 위원장이 성진제강(성강)을 현지 지도한 것을 계기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주장,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를 공식화한 뒤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 ‘라남의 봉화’ 등의 구호를 제시한 적이 있음.
- 공동사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심화”할 것을 강조
 - “전당, 전군, 전민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투쟁방식에 의거하고 우리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21세기의 새로운 대고조력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
- 김정일 ‘와병설’ 이후인 2008년 9월부터 북한은 김정일 중심의 ‘일심단결’을 주요 구호로 내세워 강조해 왔는데 금번 공동사설에서도 예외없이 ‘일심단결’이 강조됨.

- “일심단결은 우리의 위대한 대고조력사의 기본추동력이며 수령과 인민이 하나로 뭉친 힘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하다. 오늘의 대고조는 조국의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 예년과 달리 ‘집단주의’가 강조되고 있음.
 -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혁명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고결한 품모가 온 사회에 더욱 활짝 꽃피어나게 하여야 한다”
 - 시장확산을 막고 ‘사회주의 본태’를 복구하려는 의지로 평가됨.

나. 전망

- 김정일 ‘와병설’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김정일 권위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김정일 절대권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집단주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개인주의에 대한 통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김정일 중심의 ‘일심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난으로 인해 이완된 사상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반자본주의’ 교육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자주, 자립, 자위’로 대표되는 주체사상은 김정일 유일사상인 선군사상과 ‘장군주의’로 변형되어 그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2. 경제

가. 시정방향

- ‘대외경제관계’라는 단어가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은 2009년도에 대외경제관계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는 침체이고, 중국경제도 침체이며,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자력갱생’이라는 내향적 경제정책을 강조
- 일반적으로 북한은 항상 경제정책을 제시하는데서 ‘선행산업’으로서, 전력, 석탄, 금속, 철도수송을 앞장세워왔으나, 금년에는 4대 선행산업에서 금속을 따로 분리하여 앞장세우고 있음.
 - 이는 전력 부문인 수력발전소 건설에서 일정 성과가 있었고, 석탄은 금년도에는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함.
-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해 먹는 문제 해결, 생필품 수요 보장 등을 강조하였음.
 - 농업부문의 생산증대를 위해 당의 방침(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 콩농사방침) 관철 및 자체의 힘으로 농사 투쟁 전개
 - 경공업부문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증산 및 상품공급사업 개선
 - 건설부문의 평양시살림집건설, 산림조성사업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 전개

-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일 것을 요구함.
 - 경제건설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강화, 계획화사업 개선, 주요 대상들에 역량과 자원 집중, 각종 규율 강화, 내부예비동원사업과 절약투쟁 전개, 경제관리의 정보화·과학화 등 주문
- 과학기술역량을 국가적으로 집중해 경제의 자립성 강화 및 현대화에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주문함.

나. 전망

- 2009년은 지난 시기보다 더욱 강하게 자력갱생의 경제건설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 신년사 곳곳에서 천리마대진군, 혁명적대고조를 내세우며 집단주의와 대중동원을 강조
 - 자체의 힘, 자원과 기술,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경제건설에 매진
 - 따라서 인민경제의 개건과 현대화에 필수적인 외부세계의 협력은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사회주의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에 있어서는 계획경제의 복구에 중점을 둔 개선에 치중할 것으로 보임.
 -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의 다른 한 축인 개혁(시장경제의 도입 및 확산)은 소강상태에 돌입
- 북한이 신년사에서 제기한 것처럼 2009년도 경제를 운용한다면 북한 경제는 또다시 선군(정치·사상)에 경제가 종속되어 성장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3. 사회·문화

가. 시정방향

- 외부로부터의 자본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과 동요를 경계하고, 규율 및 정치사상교육 강화를 통한 내부 단속을 강조함.
 - ‘넓은 사상잔재’와 ‘이색적 생활풍조’ 불허
 - 사상 문화적 침투 방지, 심리모략전 배격, 사회주의생활양식 확립 강조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근로단체의 과업을 제시한 가운데, 특히 노동계급과 청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함.
 -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전투부대’로서 노동계급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
 - 청년동맹 사업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사명감과 도덕풍모를 강조

- 문학·예술작품 창작을 활성화하여 ‘선군시대 사회주의문화’ 발전의 전성기를 이룰 것을 촉구
 - 선군시대의 문화 발전 및 정치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 문학·예술 작품의 성과와 중요성에 대해 언급함.
 - 인민들의 사상교양에서 문학예술 창작품과 군중예술활동의 역할 강조

- 교육 및 보건부문에서는 예년과 유사한 과업을 제시함.
 -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내용 및 방법 개선, 교원 자질 향상, 정보 산업시대에 맞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 향상을 지적
 - 보건 부문에서는 대중약품생산 증대를 과업으로 제시

나. 전망

- 식량문제 지속, 주민들의 잠재적 불만 증대, 주민 생활에서 시장적 요소의 영향력 증가,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문화 유입 등에 따라 체제결속 및 주민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
 -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통제와 시장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북·미관계 변화 등 대외적 요소와 식량사정에 따라 통제의 수위를 조절
- 교육과정 개편, 학과 통폐합, 교수법 개선 등 교육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가운데, 특히 과학기술부문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부문의 개혁에 주력할 것임.
- 당의 정책노선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조와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주민들의 사상교양과 사회주의문화 정립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임.

4. 군사

가. 시정방향

- 전년도에 비해 모든 사업에서 군사를 앞세워야 한다는 ‘선군정치’ 기조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드러남.
 - 전년도의 경우 군사부문을 경제부문에 앞세웠으나 올해에는 경제 부문 다음 군사부문이 나옴.

나. 전망

- ‘경제적 강성대국’ 지향 목표 달성을 위해 점차적으로 ‘획일적’ 군사력 건설 우선정책에서 ‘군사/경제 병진정책’의 특성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군대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와 검열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5. 대남

가. 시정방향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옹호하고 이행하는 것만이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담보하는 길임을 강조함.

- ‘우리민족끼리’ 구호 하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남한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선동함.

나. 전망

- 북한은 지난 한해동안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전력투구하고 대남 비방, 대남 협박을 지속하면서도 남한에 대하여 “승미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자가당착적 모순을 드러냄.
 - 북한의 대남비방 자체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위반
 - 일면 대남비방 협박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민족끼리’를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이념이라고 주장하는 모순
- 북한은 대남정책을 ‘조국통일운동’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속내를 드러냄.
 - 대남정책을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과 주민불만을 ‘통일’이라는 돌파구로 배설하는 전략으로 활용
- 당분간 북한의 대남 강경태도는 계속될 것이나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보다는 단절 직전까지 몇단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관계의 완전단절은 관계 회복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자칫 북한이 소중히 여기는 남북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 미칠 수 있으며,
 - 남한 내 여론의 역풍 가능성과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으로 가능성이 낮음.

6. 대외

가. 시정방향

-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일절 삼가며 오바마 정부에 추파를 보냄.
- 전통적 “자주, 평화, 친선” 구호 아래 ‘자주적’ 대외정책 강화를 강조함.
 -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자주적 대외정책’의 지속
 - 그러나 “자주, 평화, 친선” 구호 아래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는 발전시켜 나감.
 - 전통적인 대외 인식인 ‘반제자주’의 입장에서 “세계의 자주화 위업 실현에 적극 이바지”로 변경

나. 전망

-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특히 경제적 자원 획득과 북한 체제 안보의 우호 세력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세적인 외교’를 통해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IV. 정책적 함의

- 통제강화로 사회전반이 경직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하여 더욱 큰 혼란으로 이어지거나 탈북자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경제회생의 비전이 없고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상반기 이후 북·미관계의 실질적 성과 미약,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남북관계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당면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한 후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인 바, 비핵화 진전 이후 실리차원에서 적극적인 대남접근 가능성
- 북한의 강경 태도는 북한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며, 남한이 출구를 마련해 주면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 당분간 남북관계에서 북한 보다는 남한내부, 국제협력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보다 중요함.
 - 북한의 경직된 태도에 의해 남북관계 정체 불가피
- 그러나 상반기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압박을 받을 경우 우리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에게 적절한 명분을 주어 퇴로를 열어 주는 대신 남북간 거래 방식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강구함.
 - 북한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항복하고 나올 가능성은 낮음.

- 북한의 변화라는 목표와 인도적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래방식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함.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 모니터링 강화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방식 개선
 - 남북협력 사업 투명성 제고

<부록> 2009년 신년 공동사설

2009년 공동사설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는 1일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에서 력사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희망찬 새해 주체98(2009)년이 밝아왔다.

선군의 기치따라 백승을 떨쳐온 우리 조국은 지금 새로운 비약의 폭풍시대에 들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지퍼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는 새해의 진군길에 들어선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거세찬 격동의 불길을 일으키며 온 나라를 과감한 돌격정신과 창조적 기백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지난해 주체97(2008)년은 60년에 걸치는 우리 공화국의 금지높은 년대기우에 빛나는 승리의 장을 기록한 역사적전환의 해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총공격전으로 불러일으켰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의 포성을 울린 지난해에 온 나라에는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국청사에 아로새

겨질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는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기적의 근본원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에도 무한대한 정력을 지니시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사회주의승리와 우리 공화국의 룡성번영의 길을 휘황히 밝힌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분출시킨 위대한 고무적기치였다. 지난해 정초부터 한해가 다 저물어갈 때까지 전선천리와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전설적인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는 력사에 류례없는 애국헌신의 장정이였다. 이 불멸의 로정에서 령도자를 받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흥모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고 우리 조국이 끝없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비약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다.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고 정치사상전선, 반제군사전선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된것은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의 과시로 된다.

지난해에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여온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만천하에 떨쳐졌다.

공화국창건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장식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시위하였다. 천만군민이 령도자를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일심단결의 대풍모, 전민이 무장한 선군조선의 무적필승의 위용,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해나가는 혁명적기상이 9월의 대축전장에 차넘쳤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드세찬 공격전을 벌임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자력갱생의 불길속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레성강청년1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녕원

발전소와 같은 중요대상들이 완공되어 인민경제의 기술적토대와 생산잠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당의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대흥단과 미곡협동농장은 우리 사회주의농촌의 휘황한 전망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져 조국의 면모가 몰라보게 일신되었다.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부문에서 《강선의 노을》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음악예술작품들과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를 비롯한 국보적인 걸작들이 창작되고 과학교육사업과 체육부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앞날이 참으로 밝고 창창하며 우리 인민은 드디어 오랜 세월 갈망하던 리상사회의 문어구에 들어서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이끄는 선군의 길이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참다운 사회주의길이며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이 지난해투쟁의 금지높은 총화이다.

새해 주체98(2009)년은 당의 부름따라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력사적인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때처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을 불며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중대한 력사적계선에 서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돛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은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당과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며 선군조선의 국력을 최성기에 올려세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더없이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오늘의 총공격전에 박차를 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사회주의조국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야 한다.

위대한 격동의 시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시대가 우리앞에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선군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12월 24일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발단을 열어놓으신 1956년 12월의 그때와 같이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일대 전환기를 안아온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여기에는 전후 빈터우에서 천리마대고조로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비약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선군으로 존엄높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우리는 당의 부름따라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최강의 정치군사력을 가진 선군조선이 이제 어떤 기적을 창조하며 기세차게 솟구쳐오르는가를 세계앞에 당당히 보여주어야 한다.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선군조선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명백하며 우리에게는 새 기적, 새 진군속도창조를 위한 비약의 룡마가 마련되어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투쟁방식에 의거하고 우리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21세기의 새로운 대고조력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선군의 불길속에서 다지고다져온 우리의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혁명적인 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것, 이것이 우리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다.

사상의 위력, 우리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야 한다.

사상분야에서의 오늘의 총공세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켜 우리의 사회주의사상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이다.

우리는 오늘의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이자 주체이고 선군이며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선군정치가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지도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승리의 길을 앞장에서 개척하여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일심단결은 우리의 위대한 대고조력사의 기본추동력이며 수령과 인민이 하나로 뭉친 힘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하다.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겨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는 조국의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장군님만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고결한 량심과 불변의 신념,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당정책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의지, 이것이 오늘의 총진군대오에 맥박쳐야 할 일심단결의 정신이다. 우리는 전후 어려운 시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은것처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한다. 우리 인민은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려 20세기를 기적과 비약의 년대들로 수놓아온 애국심이 강한 인민이며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락원예로의 길을 열어제낀 혁명적인민이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의 념원이 깃들어있고 천리마시대 영웅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누구나 오늘의 거창한 시대의 흐름에 용약 뛰어들어 혁명적대고조의 선구자, 선군시대의 애국투사로 삶을 빛내여야 한다.

사회주의년이 살아 맥박치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잔재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추호도 허용될수 없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온 사회에 사회주의생활양식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은 우리의 고유한 혁명방식이며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

모든 문제를 집단의 힘에 의거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발양시켜 풀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혁명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고결한 품모가 온 사회에 더욱 활짝 꽃피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초소, 모든 단위, 모든 부문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자력갱생에 우리의 힘이 있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 자기 힘을 믿는자가 승리자이며 우리의 미래는 다름아닌 우리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사회주의터전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세계를 굽어보아야 하며 자체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자원과 기술, 우리 제도의 우월성에 토대하여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 최첨단과학기술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은 물론 래일에도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한다. 그 어떤 강적과도 싸워이기고 재더미속에서도 일어나 기적을 창조하여온 강의한 기질과 자존심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선군시대의 총진군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경제를 비약적인 발전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새로운 총진군운동이다. 우리앞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새 기술로 장비된 강위력한 주체공업이 있기에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하는것이다.

우리는 금속공업의 선차적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금속공업은 우리 사회주의자립경제의 기둥이다. 주체철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금속공장들에 전기와 연료,원료를 집중적으로 대주어 이미 개건된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큰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지금 선군시대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든 강철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와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전국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는데 힘을 쏟으면서 건설중에 있는 수력발전소들의 조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경제발전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탄광들의 생산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철도의 통과능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유망한 광산들을 실리있게 개발하며 기계공업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고 현대화를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 기초화학제품생산을 늘이며 남흥가스화대상공사를 다그쳐 끝내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올해 알곡 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며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수산부문에서 수산물생산과 재배어업,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과 지방산업공장들,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생활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평양시살림집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며 도시경영사업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성이 구현되고 건축학적으로 완성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산림조성사업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밀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경제건설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경제작전과 조직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로동행정규률, 계획규률,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며 전사회적으로 내부예비동원사업과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경제관리를 정보화, 과학화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는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국가적으로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풀어나가야 한다.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어떤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도 점령할수 있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완강하게 밀고나가며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의 융성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과제를 종자로 잡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대고조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어야 한다.

선군시대 사회주의문화발전의 전성기를 더욱 활짝 꽃피워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격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사회주의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한 명작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지난 시기에 창조된 정신문화적재부들이 선군 시대에 더욱 빛이 나게 하며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혁명적량만과 전투적기상이 짝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교육부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후대교육사업, 인재양성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키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워야 한다. 보건부문 일군들이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며 대중약품생산을 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체육발전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인들이 국제 경기마다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선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

무적의 군력을 바탕으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강화하며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우리 당 선군혁명로선의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인민군대는 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강력한 주력군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의도, 명령지시에 따라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제와 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확고히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훈련을 통하여 사상과 신념의 강자,일당백의 총폭탄용사들이 자라난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용위에 기본을 두고 전투정치훈련을 드세차게 벌려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야 한다. 오중흙7련대 청호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항일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높이 떨쳐야 한다.

전군의 혁명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동지애에 기초한 관병일치, 군정배합을 더욱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고 강철같은 군사규율을 확립하여 고도로 정규화된 조선인민군의 품격과 면모, 기강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자랑인 군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서야 한다.

선군시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퍼올리는데서 인민군대의 핵심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답게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사상과 정신, 도덕과 문화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제도를 건드리는자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립장은 단호하다. 계급적각오와 적개심이 서리발치는 우리의 총대는 원수들의 그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로농적위대창건 50돛이 되는 올해에 민간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걱정과 환희에 넘쳐 모든 분야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갔던 1970년대처럼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근 반세기를 헤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오늘의 벽찬 현실은 모든 사람들의 심장속에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붉은 피가 펄펄 끓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조직들은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정치사상적열의에 맞게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그들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 위훈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화선식방법으로 선전선동을 패기있게 벌려 온 나라에 천리마대진군때와 같은 혁명적열정과 기상이 꼭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당세포들이 총공격전의 전위대가 되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어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을 체질화하고 장군님식으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대담하고 전개력이 있는 일군,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갈줄 아는 용감무쌍하고 진취적인 일군,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척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이 되어야 한다. 일군들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사업을 치밀하게 작전하고 설계하여 자기 단위가 대고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고조력사의 주인공이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전투부대이다. 우리 혁명의 전환적인 년대들마다 시대를 앞장에서 개척하는 영웅으로 자랑떨쳐온 조선로동계급의 기개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선구자의 용감성, 강자의 자존심, 창조자의 대담성을 가지고 남들이 백걸음 걸은것을 한걸음에 뛰어넘는 기적을 이룩하여야 한다. 강선로동계급은 당이 안겨준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대고조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을 지닌 선군시대 돌격투사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청년들의 활무대이다. 청년들은 대고조로 들끓는 시대에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를 높이 떨쳐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세계와 천리마대고조시기 청년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고상한 도덕포모를 지닌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모든 동맹원들이 천리마시대의 기수들처럼 조국의 룡성변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이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쇄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날뛰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은 지금 총파산에 직면하고있으며 반통일세력은 헤어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민족을 등진 정상배들의 롱락물이 될수 없으며 자주통일예로 나아가는 시대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지난해 정세흐름은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써만 조국통일을 앞당겨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리념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으로 전환시킨 6.15 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온 겨레는 숭미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것은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서로 적대시하고 군사적긴장이 격화되는 상태에서는 북남관계의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기대할수 없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화해하고 협력하는 기운이 강토에 차넘치게 하며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쇼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신 우리 조국은 당의 선군령도밑에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하고있다.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공화국처럼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있고 전체 인민이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포부, 신심에 넘쳐있는 전도양양한 나라는 없다.

우리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이며 우리가 가는 길은 영원한 주체의 길, 선군의 길이며 우리의 힘은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다. 주체년호로 빛나는 김일성조선의 100년대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로 장식하여야 할 역사적사명이 우리 세대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당이 펼친 휘황찬란한 래일의 설계도가 있고 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기적을 창조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있는 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저	9,000원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Vol. 17, No. 1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Vol. 17, No. 2 (2008)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2006	2005 독일통일백서	8,5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Seongwhun Cheo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9-01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9년 1월 일
발행일	2009년 1월 일
